

“대만 고궁박물관에 가서 보세요”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 이웃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찾아서-

노재만

대한결핵협회 본부 검진과장

회창 한 초여름 날씨속에 기내에서 내려다보이는 바다는 하늘인지 바다인지 분간할 수 없이 파랗게 보인다. 가끔씩 구름위를 지날때면 금방 활

짝핀 목화처럼 보여 마치 그림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하고 있는데 여행목적



▲ 일본 결핵여행회 결핵연구소를 방문. 동 연구소 복십자병원에서 기념촬영. (뒷줄 왼쪽에서 다섯번째가 필자)

보다는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일본, 홍콩, 대만에서의 결핵실상을 파악하고 상호정보교환을 목적으로 각 시·도청에 근무하시는 결핵관계자 11명과 본회 본부 및 시도지부 직원 10명은 지난 6월 6일 오전 9시 30분발 비행기로 일본으로 향했다.

먼저 METROPOLITAN Hotel에 여장을 풀고 버스로 3시간 거리에 위치한 일본 결핵예방회(일본 결핵연구소)를 방문하여 外川郁雄 부장의 안내로 결핵실태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또한 B.C.G 및 연간예산 등 다방면에 걸친 진지한 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았으며 기념촬영도 하였다.

작으면서도 규모있고 깨끗한 느낌이 있는 일본 시가지는 도심복판에 공원이 즐비하고 그 관리를 철저히 하여 항상 푸르름을 지니고 있었다.

며칠간 체류하면서 명치신궁, 동경도청사, 에비스가든, 긴자거리, 황거(皇居)를 보면서 지난 역사를 닦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힘을 모아 그들과 함께 인류의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마음도 저버릴 수 없었다.

일본을 뒤로하고 6월 9일 홍콩에 도착하니 오후 3시, 공항대합실을 나서는 순간 숨막힐 듯한 더위가 전신을 엄습해온다. 간단하게 짐을 챙겨 곧바로 열차편으로 중국(심천)으로 떠나 국경을 넘어설 때 너무나 지연되는 세관원의 업무로 거의 1시간이 넘어서야 우리들은 통관절차를 모두 마칠 수 있었다.

경제특구로 지정된 4개지역 중 2개는

실패하고 주해와 심천이 성공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 중 심천이 성공한 모델케이스라는 가이드의 설명이었다. 중국국민 평균소득에 4배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어 중국인이면 누구나 이곳 심천에서 일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하니 자본주의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

또한 그곳에서 LG건설에서 건축중인 빌딩을 보며 가슴 한 켠 뭉클함을 감출 수 없었다.

이튿날 “소인국”관광을 마치고 심천에서 선박편으로 마카오로 향할, 도착 즉시 관음당을 관광했는데 이곳에서 느낀 점은 중국 불교문화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와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 특이한 것은 불상을 모시지 않았고 문.무(공자님, 관운장)를 함께 모시는 도교사상이 지배적이었다.

관음당 관광을 마치고 김대건 신부가 수학(修學)했다는 성바로대성당에 갔다. 지금은 앞쪽 석조건물만 덩그렇게 남아 불타버린 뒷부분 목조건물을 볼 수 없어 조금은 아쉬웠고 지난한 시간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마카오에서의 짧은 일정을 마치고 6월 10일 오후 4시 제트호일(선박)편으로 홍콩으로 다시 귀환, 홍콩의 야경과 더불어 선상에서의 저녁식사로 이국적 정취를 만끽하였다.

눈부신 야경을 배경으로 시원한 바닷바람을 마시며 어느덧 피로도 지친모습도 다 씻긴 듯 했다.

6월 12일 아침식사를 끝내고 “홍콩 방노 심장 및 흥병협회” 유익봉(兪錫鵬)행



▲ 김대건 신부가 수학한 성바로 대성당으로 1835년 태풍으로 인한 화재로 현재는 건물 정면만 남아 있다.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지난한 시간의 무게가 느껴진다.

정비서(총장)의 안내로 결핵 및 호흡기 전반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92년이 후부터 중단된 쌀 발행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쌀 성금은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백화점이나 슈퍼 등에서 모금을 하며 모금의 중요성을 담은 설명서(안내문)를 보내서 모금을 하고 있다. 연간 모금총액은 한화로 약 10억 정도라 한다.

나머지 수입은 주로 종합병원 수입과 국고금 일부로 충당하고 있으며 '97년 7월 1일부로 영국영토에서 중국영토로 반환되기 때문에 그 준비로 나름대로 바쁜 모습들이었다.

홍콩에서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13일 대만으로 향발 6월 16일까지 체류하였다. 용산사와 야시장을 관광하였고 특히 용산사 돌기둥(石柱)의 예술적인 조각(약 300년에 걸쳐 조각)은 상상을 초월한 예술적인 작품이었다.

향 내음이 짓게 배인 용산사를 뒤로하고 야생류 동물로 가득한 야시장을 보면서 혐오감과 비릿한 냄새는 지금도 거북하기 그지 없다.

이튿날 아침 7시에 기상하여 호텔내에서 간단한 식사를 마치고 8시 30분 기차로 화련으로 출발 점심식사 후 9개 고산족 중 "아미족"이라는 고산족의 민속쇼를 관람하였다.

오후 2시에 장계석 총통이 군사도로(퇴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수천명의 인

명을 잃어가면서까지 만들었다는 대만의 유일한 동서횡단도로(공식명칭 : 東西橫貫公路)를 따라 해발 2,000~3,000m를 돌고 돌아왔다.

비도 내리고 사방은 칙흑같이 어두운데 고산족의 불빛만 띄엄띄엄 보일 뿐, 몇몇 여자분들의 힘들어하던 그때의 모습에 선해 지금도 안타까운 마음이 아련히 떠오른다.

참으로 힘든 코스였지만 그 경치는 내 생애에 더할 수 없는 절경이었다.

다음날 쾌청한 아침날씨와 맑은 공기는 어제의 조바심도, 피로도 말끔히 씻었다고나 할까. 모두들 밝고 환한 모습이다.

대만에서 만난 가이드 조정준씨는 충남 삼교가 고향으로 현재 중국사 박사학위를 준비하고 있는 유학생이었다.

우리나라는 중국문화권이면서 올바른 지식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것을 가이드 조정준씨를 통해 잘 알 수 있었다.

그 이튿날 일월담, 현장사, 문무묘를 관람하는데 갑자기 내린 소나기로 한때 추녀밑에서 비가 그치길 기다리다 그곳 스님께서 주신 신문으로 겨우 머리만 가리고 버스를 탔던 기억도 떠오른다.

6월 15일날 오전 중화(대만)민국 방노 협회를 방문하여 그곳 林平道사무이사께 협회 운영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간담회 형식으로 질문과 답변이 오고갔다. 현재 주 수입원은 건물 임대료로 충당되고 운영비 일부는 병원수입과 쌀 성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특히 퇴행성 질환인 노인들에 대한 물리치료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했다. 특이한 점은 전원 통원치료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끝으로 작별인사를 나눈 뒤 국립고궁박물관과 충열사를 관광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70여만점이 소장돼 있는데 그 소장품들을 다 보자면 25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해 자기 생애 그 어떤 누구도 그 유물들을 다 보지 못했단다.

지금도 중국 자금성 박물관 현관출입구에는 「국보급 유물은 대만 고궁박물관에 가서 보세요」라고 써놓았단다.

아마도 대만이 자기들의 영토가 멀지 않았다는 중국인들의 생각인것 같았다.

그리고 야류해양공원, 중정기념관 공자묘를 관람했는데, 특히 야류해양공원의 사암(砂岩)은 언젠가는 닳아 없어질것 같았다.

긴 여정을 마치고 6월 16일 17시 45분 귀국길에 올라 서울에 도착하니 21:00경이었다.

우리집의 방이 넉넉하면 하룻밤 쉴 장소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였으나 그러지 못해 죄송한 마음을 지금 이 지면을 빌어 놓아본다.

그리고 10박 11일간의 긴 여정에서 서로를 감싸주고 아껴주셨던 이번 연수자 모두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여행사 조영제 이사, 이러한 해외연수를 통해 다른 나라의 결핵관리 실상 및 문화와 역사를 경험할 기회를 갖게 해주신 대한결핵협회 한용철회장님과 사무총장님,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한번 감사사를 드린다. 卍